

그것과

내시경

“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니...
뱃속을 들여다
본단 말이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들이 비록 가진것이 없는 궁핍한 처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의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퍼부은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면 꽤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페니실린, 아스피린, 종두법 X선까지, 그리고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시경이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인체의 내부를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작은 카메라. 이것은 현대 의학의 수준을 한단계 높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창의 커튼 사이로 막 깨어난 햇볕이 따사롭게 비쳐들고 있었다. 작은 새의 노랫소리와, 아침을 알리는 온갖 소리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방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여느날의 아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날이었다.

그러나 허쇼위츠의 마음은 이 고요한 아침과 어울리지 않게 몹시 산란해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한밤중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그에게는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을것 같이 보였다.

‘휴우, 난 왜 이렇게 무력한 것일까?’

그의 깊은 한숨이 흘러 나왔다.

‘내 반평생의 연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는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 있었다. 세번의 실패. 이젠 더 일어설 힘도 없었다. 그저 포기하는 말만이 머리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허쇼위츠가 내시경이란 것을 접한 것은 벌써 5년전의 일이었다. 그때 당시 허쇼위츠는 그 새로운 기구에 몹시 흥미를 보였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 이걸 입속으로집어 넣어 뱃속을 들여다 본단 말이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

그는 가늘고 기다란 쇠막대를 보며 눈을 빛냈다.

“획기적인 물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쓰이지 않는답니

그들은 누구인가

다. 그 꼬챙이를 뱃속에 집어 넣으면 환자들이 무척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 말은 하쇼위츠의 가슴속을 파고 들었다. 그리고 웬지 아쉬워하는 듯한 그 사나이의 낯웃스가 마음에 걸렸다.

‘사람의 배를 가르지 않고도 위장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니! 몇가지 결점만 보완한다면 정말 멋진 의료기구가 되겠는걸!’

그는 의욕에 불타 새로운 연구에 과감히 도전했다. 주위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던 터라, 그의 가슴속은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목표와 신념은 확고했기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문명의 여신은 그에게 잔혹하게 굴었다. 그의 연구의 진전은 지지부진했고, 그는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첫번째의 실패에서 그는 많은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두번째 실패에선 자신의 후원자를, 세번째의 실패로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다.

‘정녕 내 목적을 이룰 방법은 없단 말인가?’

그는 창을 등지고 앉아 두팔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손보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머리카락들이 그의 손안으로 엉켜들었다.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다. 그는 무심코 몇가닥의 머리카락을 모아 힘을 주어 보았다.

‘응? 끊어지지 않잖아?’

그는 다시한번 강하게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그제서야 머리카락은 굴복하고 끊어졌다.

매우 당연한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미칠듯이 흥분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거야! 이제서야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화상을 전할 수 있는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거야. 가느다란 수만개의 유리섬유를 한데 묶는다면 유연하고도 강한 수신관이 탄생하잖아!’

허쇼위츠는 이 실마리를 잡은 뒤로는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58년에 파이버스콘프라 불리는 내시경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지금 널리 쓰이는 내시경의 형태이다.

그것은 직경 10-20미크론의 유리섬유 10만개 이상이 한데 묶인 것으로, 이 섬유의 끝에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인체 내부의 상태를 화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밖에도 위의 관찰을 손쉽게 하기위해, 내장벽을 확장시키는 송기공, 기구의 끝을 씻어내리는 송구공등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것은 위 등의 소화기관뿐 아니라 식도, 소장, 기관지, 방광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고 그 크기도 2m에 달하는것 까지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 파이버스콘프의 발명으로 현대의학의 사후치료의 단계에서 조기발견, 예방의학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좀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좌절을 딛고 훌륭하게 일어난 허쇼위츠의 불굴의 의지 덕분이었다.

<왕연중 발명진흥부 차장>